

2000년 러시아 대외 방산수출

* 방산수출 개황

2000년 러시아는 소련붕괴 이후 가장 활발한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전 러시아의 방산수출 실적은 '96년 35억달러에서 '97~'98년에는 약26억달러 규모로 감소하다가 '99년에 34억달러, 2000년에는 37~38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공식통계가 집계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0년의 수출실적은 소련붕괴 이후 가장 활발한 실적이지는 않지만, 연초 러시아 방산담당 부총리 클레바노프가 발표한 예상치 43~45억달러에는 못 미치는 결과이다.

국제 방산시장 규모의 확대와 지역분쟁 심화 등 국제 방산환경을 고려했을 때 5억달러 이상 추가 수출이 가능했으나, 러시아의 방산수출 조직 및 방산업체의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방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무기수출공사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국영무기수출공사 로스보루췌니에 (ROSVOOROUZHENIE)

'99년 로스보루췌니에는 28.4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바 있다. 2000년 초 오가료프(OGAREV) 사장은 최소한 26억달러를 수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클레바노프 부총리는 30~32억달러의 수출을 독려했다.

2000년 10월까지 로스보루췌니에는 13.3억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으나 11~12월 들어 로스보루췌니에와 프롬엑스포트(PROMEXPORT)의 통합회사 로스오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는 중국에 대규모의 방산수출을 성사시켰다.

중국에 콤소몰스크-아무르 공장에서 SU-30MKK 다목적 전투기 10대, 이르쿠츠크에서 SU-27UBK 전투 훈련기 8대, 페테르부르크 북부조선소에서 956E급 구축함을 수출하였고, 또한 그리스에는 1232.2급 ZUBR(공기부양정)를 수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2000년 로스보루췌니에와 로스오보론엑스포트의 수출실적은 28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99년 실적과 동일한 것이다. 첫 10개월간 수출목록을 살펴보면,



함정 37%, 대공무기 25%, 항공기 19%, 기타 9%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에 대한 SU-30MKK 및 SU-27UBK 항공기 수출, 956E급 구축함 및 KIL0급 잠수함 수출에 이어 인도에 동급 잠수함 10척이 인도되면서 함정 수출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도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이다. 10월까지의 중국 49.6%, 인도 22%였으나, 그 후 중국에 대한 대규모 수출로 인하여 중국이 약 70%를 상회하고, 중국-인도-러시아 방산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들 양국을 러시아에서는 “두 형제국(BOLSHIYE DVOIKI)”이라 칭하고 있다.

12월 28일 로스오보론엑스포 르트는 인도와 SU-30MKI 전투기 140대의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33~3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도의 대러시아 방산기술 의존도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러시아 방산업체는 생존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차세대 기종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안테이콘체른**

(ANTEY CONCERN)

1999년 안테이콘체른은 21기의 Tor-M1 대공미사일발사체(AAMC)를 그리스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약 5.3억달러(일부 전문가는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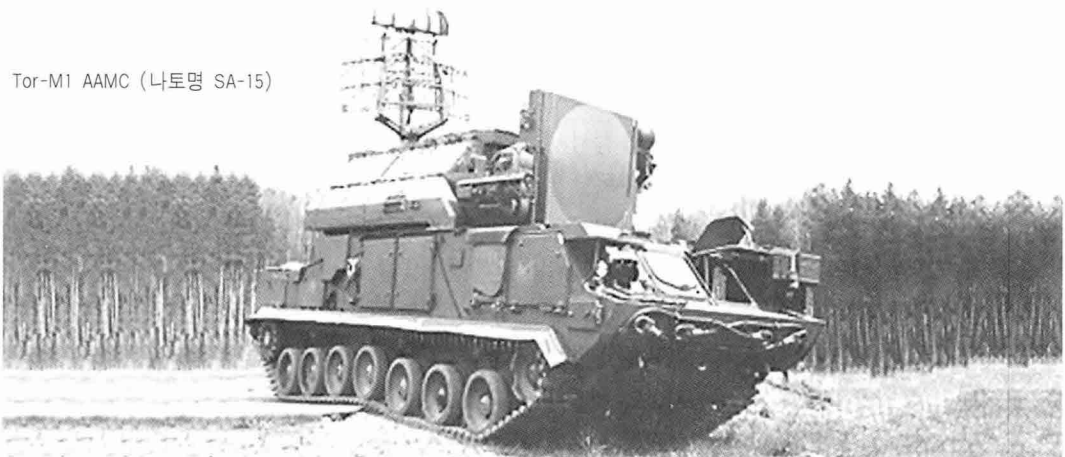
억달러로 평가)에 달한다.

안테이콘체른은 '99년 4월 4기를 인도하였고, '99년 12월 ~'00년 1월까지 6기를 추가 인도함으로써 총 10기 약 2.5억달러의 무기와 함께 약 2.5억달러 상당의 미사일 및 부수장비를 인도함으로써 약 5억달러 상당의 그리스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다.

2000년 안테이콘체른은 나머지 11기를 인도하였으며, 6월에는 추가로 4기를 12월까지 인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2000년 한해 동안 그리스에 15기의 Tor-M1 AAMC를 수출하였으며, 그 중 4기는 벌써 키프로스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2000년 4월 ITAR-TASS 통신에 의하면, 중

Tor-M1 AAMC (나토명 SA-15)





국에 경험차관 상환의 일환으로 13기의 Tor-M1 AAMC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1999년 계약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안테이콘찌른은 2000년 한해동안 28기의 Tor-M1 AAMC를 5억달러 이상 수출하였으며, 향후 6기를 추가로 그리스에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스는 19기를 추가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도 안테이콘찌른으로부터 수기의 판매제의를 받고, 현재 사전 성능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프롬엑스포르트 (PROMEXPORT)**

2000년 8월까지 프롬엑스포르트는 1.07억달러를 수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대외수출에 관한 공식발표가 없어 공식통계는 제시할 수 없지만, 2000년 한해 동안 1.8~1.9억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프롬엑스포르트는 예멘에 T-72전차 30대, 나이지리아에 Mi-35P 헬기 2대를 수출한 사실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Aviaexport가 인도에 Mi-17

헬기 40대를 수출하는데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Tula 디자인부로**

톨라 디자인부로는 1999년에 1.8억달러의 방산품목 및 용역수출을 달성하였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 수출업체 중 3위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2000년에는 1.5~2배에 달하는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0.8~1억달러 수준이다.

2000년 5월 톨라 디자인부로는 최근 러시아제 무기구매 경험이 없는 아랍에미레이트와 7.2억달러에 해당하는 Pansir-S1 대공미사일 50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더구나 이 대공미사일은 아직 연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수입국의 부담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로스보루찌니예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큰 계약을 성사시킨 업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테이콘찌른이 그리스와 Tor-M1 대공미사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총 5.2억달러에 불과하며, MiG사가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MAPO MiG 5.6억달러 수출계약은 로스보루찌

니예가 성사시킨 것이다.

*** 미그(MiG)사**

미그사는 2월 MiG-29 4대를 방글라데시에 수출하였으며, 이어서 3월에 방글라데시는 1999년 수입한 4대와 함께 8대를 공군에 실전배치 완료하였다고 공표하였다. 이후 2000년 기간 중 대외수출 실적이 발표된 바 없다.

미그사의 현재 주요 추진사업은 EADS사와 합작으로 유럽에 배치된 MiG-29의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MiG와 EADS의 합작사인 MAPS는 수리부속 및 용역수출을 통하여 약 1억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Nikolay Nikitin이 일간지 "Vedomosty"와 회견한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 기타 수출업체**

Rubin 디자인부로와 Komsomolskoe 기계제작 디자인부로는 2000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Reutov 기계제작 연합의 수출실적은 대외 공표되지 않고 있다.

*** 총 괄**

현재까지 언론에 공표된 2000년 러시아 대외 방산수출



실적은 37억달러에 이르며, 발표되지 않은 실적을 고려하면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1월 전략 군사기술분석 연구소(AST)는 1999년의 수출실적을 32억달러라고 잠정집계한 바 있으나, 공식 집계는 34억달러로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2000년 러시아 대외 방산수출 실적은 40~4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향후 전망**

현재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안테이콘쎄른, 톨라 디자인부료 등 방산수출업체의 수출관련 마케팅활동 능력을 고려한다면, 2001~2003년 기간중 러시아의 대외 방산수출은 40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향후 단기간(2~3년) 러시아 방산수출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전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정부기구 및 방산업체 구조조정을 통하여 방산수출 담당기관 및 관료조직간의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에 의한 방산수출업무 직접통제가 강화될 것이며, 이란과 리비아에 대한 무

기 금수조치 해제조치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아직까지 상기 조치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방산수출은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비용 조달, 정부조직 내의 유연성, 방산수출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통제, 군산복합체의 구조조정, 국제 방산협

력 진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 방산업체 첨단기술의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은 푸틴 정부의 방산시장 기반조성 능력 및 거시경제적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상기 제반조건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방진회 해외사업팀〉



MIg-29 펠크림